

거문도의 지역 특성 변화 - 토착기물 중심으로

박민정

(신라대학교 강사)

1. 서론

근대화란 국지적 지역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기반을 둔 독특한 전통사회에서 보편적인 근대사회로 변화되는 하나의 동질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이와같은 변동의 과정에 개입한 것은 서구 문물의 이식이며, 이러한 이식된 문화는 한국 사회의 전통 문화와 접촉하여 융합, 저항하며 변화되어가는 토착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근대화 과정에서 지역은 원질의 고유성이 해체되어 가며 점차 새로운 제도와 기술을 수용하고 이를 토착화하여 시간이 지나면 이전과 다른 지역성을 지니게 되기도 한다.

연구지역인 소규모 도서지역인 거문도는 개항과 일본인 이주 어촌의 형성에 의해 전통적인 반농반어의 생계형태가 어업중심으로 변화되어 가고, 어로장비와 유통체계의 근대화를 통해 자급적 어업은 상업적 어업으로 전화되어 간다. 이러한 생산 양식의 변화는 비가시적 측면의 변화를 유발하며 점차 공간상에 투영되어 나타나게 된다.

거문도를 대상으로 근대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일본인 이주어촌 거문리가 형성되기 이전의 전통시대와 이후의 근대화를 구분하였다. 또 다시 이 근대화기를 새로운 문물이 이식되어 변화되는 근대화 이식기와 이식된 문화가 거문도의 원형 문화에 영향을 주며 토착화되는 근대화 토착기로 재구분 하였다. 본 연구는 이중 이식된 문화가 소규모 지역에서 토착화되어 공간상에 투영된 근대화 토착기의 거문도를 중심으로 공간 구조를 고찰하고 그 변화양상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 조사와 현지조사가 병행되었으며, 1921년과 1952년의 지형도를 통해 지역변화를 확인하고 현재조사를 통해 공간구조 변화를 파악하였다.

2. 거문도의 공간 구조

근대화 토착기에 이르러 거문도 지역에는 어로장비의 근대화와 어선의 대형화 등으로 기업적 어업이 출현하고, 영세 자영어민의 어업 소득도 증가하게 되며, 어업과 관련된 수산 가공업, 유통업 등이 거문리를 중심으로 집중하게 된다. 이와같은 어업의 변화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유발하게 되며 이는 다시 거문도의 촌락 공간 구조에 투영된다. 거문리는 이와같은 변화가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는 공간이다. 반면 한국인 촌락은 경관의 누적적 특성 때문에 이와같은 변화가 뚜렷하게 가시화되지는 않지만 공간구조의 측면에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먼저 거문리를 중심으로 한국인 거주자의 정착으로 인한 공간구조 변화를 다음으로 한국인 촌락에서 발생한 변화를 경관과 공간 분화 등을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거문리의 공간 구조

거문리의 공간구조는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거문도에 발생한 변화를 가장 가시적으로 잘 나타내는 지표이다. 토착기 말기의 거문리 공간구조는 일본인에 형성된 일본식 공간 구조에 한국인 정착자가 형성한 공간이 더해짐으로써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낸다.

거문리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1:50000의 1921년과 1952년의 거문도 지형도를 비교한 그림 1이다. 1921년의 지형도는 거문리 형성 초기에 대한 자료가 남은 지형도이며, 1952년의 지형도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나타난 거문리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시기의 지형도이다. 또 이 변화를 상세화 한 것은 고도 만을 중심으로 한 거문리의 거주지 확장 과정을 타나낸 그림 2이다. 이 2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만의 남쪽 지역의 변화이다. 대규모 매축 공사와 방파제가 건설됨으로써 이용가능한 토지가 증가하였으며, 거주지가 만을 중심으로 호안 도로를 따라서만 나타나다가 만을 중심으로 한 전체로 확장되었다.

또 거문리에 어업 근거지로서의 기능이 부여됨으로써 고도의 만은 어항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때문에 일본인 이주자들은 고도의 만을 따라 산재되어 거주지를 선정하였다. 이후 어업 근거지로서 어항 시설이 구축되며 만주변이 정비되며, 특히 만의 남쪽과 북쪽에 매축공사와 방파제를 구축하게 되며, 만을 따라 도로가 정비됨으로써 호안 도로가 형성된다. 이 형성된 호안도로를 따라 가옥이 즐비하게 늘어지게 되며, 1940년에 이르러서는 고도의 만과 해안 전체로 거주지가 확장되고 호안도로에서 산지쪽으로 도로가 개설되며 방사상의 형태를 취하고 이 새롭게 개설된 도로를 따라 거주지가 확장되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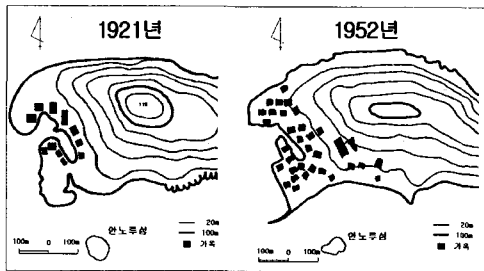


그림 1. 일제 강점기 동안의 거문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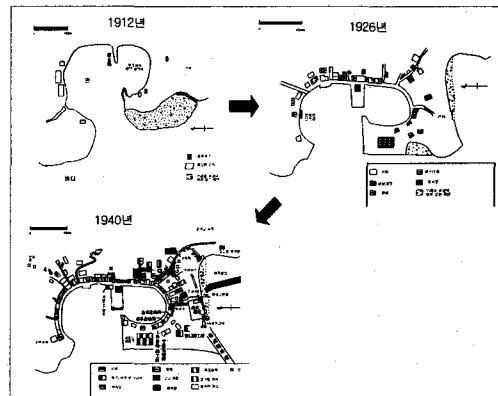


그림 2. 거문리의 평면 형태 변화

2) 한국인 촌락의 공간구조

근대화 토착기에 이르러서는 거문도의 기존 한국인 촌락에 일제 식민지 기간동안의 어업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 구조의 변화가 공간상에 투영되어 나타난다. 19세기 말엽에 『巨文鎮誌』에 의하면 촌락별로 약 100여호에 500여명 가량이 거주하였으나, 1942년에는 덕촌이 255호, 장촌이 261호, 죽촌과 유촌이 병합된 동도리가 299호로 총 815호로 나타난다. 이와같은 인구 증가는 먼저 가시적으로 가옥 증가에 따른 거주지 확대가 나타나며 또한 어업의 변화와 사회구조의 변화가 그에 따른 새로운 공간구조의 대응을 유발함으로써 공간적 변화가 가시화 되는데 먼저 각 촌락별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서도의 덕촌리는 거문리와 가장 인접한 촌락으로 거문리의 성장과 더불어 경제적 혜택을 얻음으로써 변화가 나타나는 지역이다. 이 덕촌은 19세기말 100여호에 약 500여명이 거주하였으나 1942년에는 255호에 1,424명이 거주하여 호구수로는 약 2.5배가 증가하고 인구수로는 약 3배가량 증가한다. 때문에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활 공간으로서의 거주지가 기존의 해안과 산지사이의 구릉지에서 해안쪽으로 확장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동안 항만 시설 구축이나 매축공사는 일본인 거주지였던 거문리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덕촌에는 특별한 기반 시설의 확충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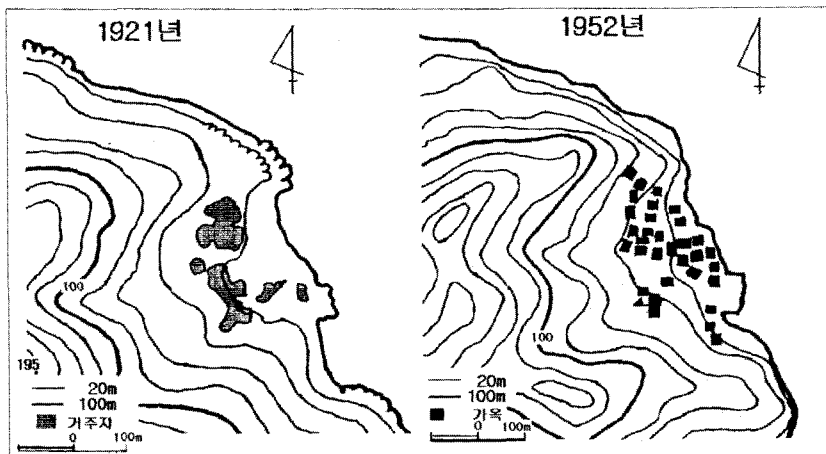


그림 3. 덕촌의 변화(1921년과 1952년)

유촌과 죽촌이 인접해 있는 동도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도리로 병합되었다. 각 100호씩 약 200여호가 거주하였던 2개의 자연 부락은 동도리로 병합된 이후 299호에 1,451명으로 거주자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구수 증가는 경관상에 있어서 거주지의 확대를 유발하게 된다. 이를 그림 4를 참고로 확인하면 두개의 산 능선 사이의 좁은 골짜기에 위치한 마을의 입지 특성상 유촌에서는 거주지가 산지쪽과 해안쪽 양쪽으로 확대된다. 또 죽촌은 해안가 쪽으로 약간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어 2개의 자연 부락 중 주로 유촌을 중심으로 인구수가 증가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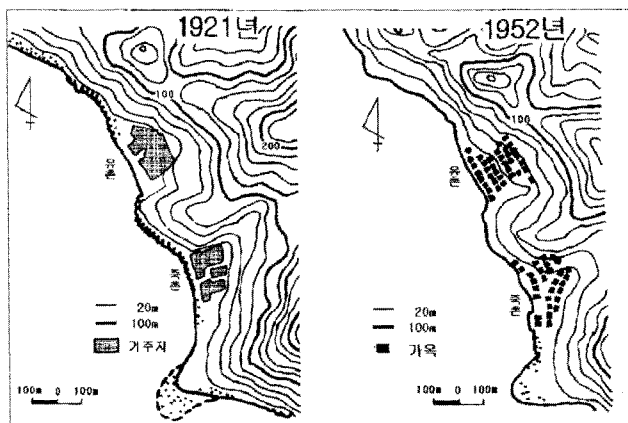


그림 4. 동도리의 변화(1921년과 1952년)

총 261호에 1,517명이 거주하고 있어 거문도 내에 가장 규모가 큰 촌락인 장촌은 전통시대부터 거문도 내에서는 가장 어업이 발달한 촌락이었으나, 이 시기 멸치 어업의 발달로 19세기말 100여호 가량이던 가구수가 약 2.6배 증가하고 인구수도 3배 이상 증가한다. 때문에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각 선주를 중심으로 한 생산 공간의 확보나 외지 고용인을 위한 선주의 가옥 증축 등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를 그림 5을 통해 확인해 보면 서도리를 구성하는 2 개의 자연 부락중 하나인 변촌에는 가옥수 증가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장촌의 거주지 확장은 해안가 쪽으로 두드러지며 특히 북쪽 취 끝으로의 확장이 현저하다. 이러한 변화는 멸치 어업 발달에 따라 취 끝에 멸치 건조장이 형성되며 촌락의 영역이 확대되어 갔음을 확인시키며 특히 어장 중심으로 촌락이 변화됨에 따라 더욱 해안 가까이로 거주지가 확장되었음을 추정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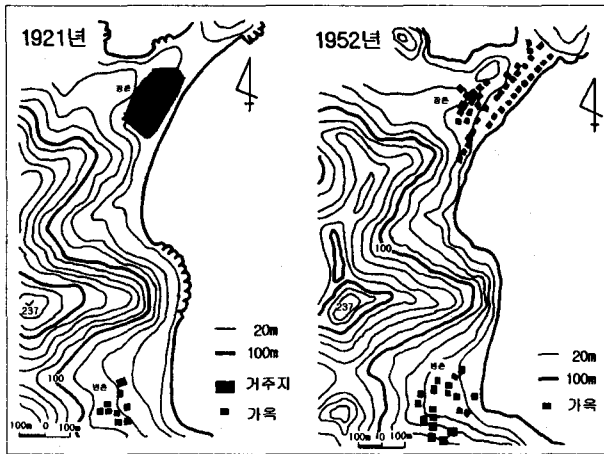


그림 5. 서도리의 변화(1921년과 1952년)

이러한 거주지의 확대와 함께 촌락내의 공간구조상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서도리를 중심으로 근대화과정에서 발생한 어업과 사회구조의 변화가 촌락의 공간 구조에 미친 영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서도리의 촌락 공간 구성은 그림 6과 같다. 마을의 앞에 펼쳐진 바다는 해양 생산 공간으로 어장으로 이용되며, 배후 산지는 개별 가구의 농경지로 이용되며 생산활동을 담당한다. 또 인구수 증가로 거주지가 확장되나 산지와 해안 사이의 구릉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공간 구조가 확장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전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작업공간이 나타나는 것이다. 새로운 멸치 조업 방법의 도입과 그에 따른 마른 멸치 만들기라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새로운 공간을 요구한다. 마른 멸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주별로 작업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 작업 공간은 반영구적인 설비를 갖추고 작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때문에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같이 장촌의 남쪽 해안가쪽의 짝지밭이라는 자갈로 이루어진 해안을 중심으로 일사량이 풍부한 해안가는 멸치 건조장으로 전용되었다. 또 어업 발달에 따라 어선수가 증가함으로써 소규모의 선착장을 갖추게 되었다. 공동공간으로는 전통시대부터 샘과 빨래터가 있었으나, 새로운 조직이 출현하고 마을 공동체 간의 의견 조율이나 회합의 증가에 따라 리 사무소가 새로 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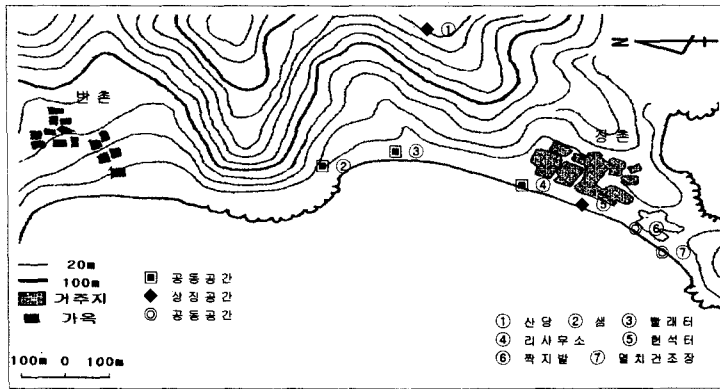


그림 6. 거문도 한국인 촌락의 공간 구성

서도리의 변화를 통해 거문도의 공간 구조 변화를 정리해보면 그림 7과 같다. 전통시대 거문도의 공간 구조와 배치는 산지와 구릉지 간의 경사지를 개간하여 생산 공간으로서의 농경지를 조성하였으며, 취락은 구릉지와 해안 간의 완경사지에 입지시켜 한국 촌락 전형의 배산임수형 입지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 해양 생산 공간으로서의 어장은 거문도의 내해를 터전으로 한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어업의 근대화는 기술의 발달에 의해 해양 생산공간에 의한 의존성이 증가하게 된다. 때문에 어구와 어법의 발달은 해양생산 공간인 어장의 외연적 확대를 유발한다. 이러한 어장의 확대는 어획량의 증가에 따른 소득 증가를 위미하며 때문에 거문도 내에서의 어업 비중이 증가된다. 어업의 발달은 촌락내 공간상에 기능 분화를 유발하는데 이는 전통시대 생활 공간인 취락에서 거주지로서의 생활 공간과 리사무소와 같은 공동 공간, 수산물 가공처로서의 생산 공간으로 분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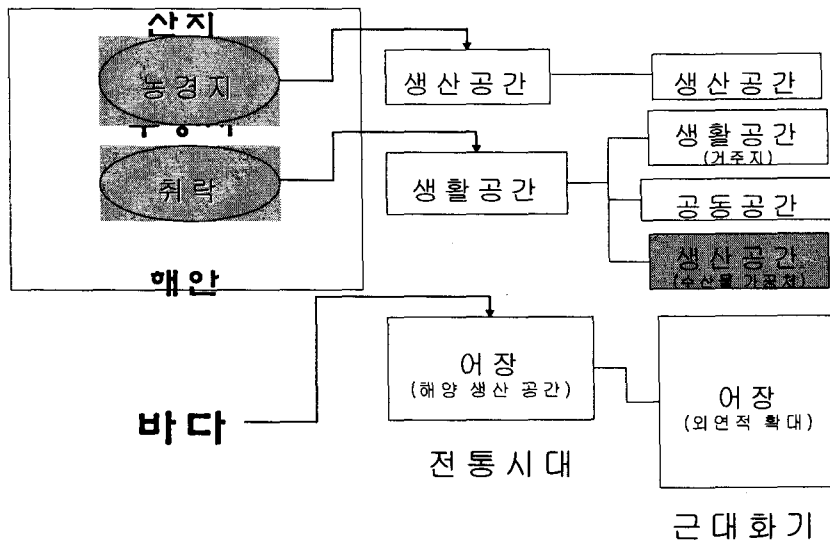


그림 7. 거문도 촌락의 공간 구조 변화

3. 요약 및 결론

근대화 토착기의 거문도의 공간 구조는 근대화를 거치며 나타난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이전시기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되었다.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나타난 거문도 지역의 변화가 가장 가시화 된 거문리 지역은 인구 증가에 따른 거주지 확장이 나타났다. 이와같은 거주지 확장은 호안도로를 중심으로 구릉지쪽으로 확장되었으며,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하고 여러 기능이 출현함으로써 도시적 경관 형태를 지니게 되며 기능적 혼재 형태가 나타났다.

거문도 지역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거문리와는 달리 기존의 한국인 거주촌락의 변화는 두드러진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근대화를 거치며 나타난 인구 증가에 따라 가옥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거주지의 확장이 나타났으며, 일본의 정책적 개입에 의해 리사무소가 건립되고, 해변에 반영구적인 작업공간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변화보다는 비가시적 측면의 변화가 더욱 두드러지는데 해양생산 공간의 외연적 확대는 어획물 처리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이전시기와 달리 거주공간과 작업공간의 분화를 유발하며 거주공간과 생산공간을 연결하던 해변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었다. 또 일본의 정책적 영향으로 정치적 활동의 필요가 증가함으로써 공동공간이 출현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大東輿地圖

여산지, 1995

湖南邑誌, 1871. 1895

戶口總數, 1789

民籍統計表, 1910

조선총독부, 朝鮮國勢調查報告書(1925, 1930, 1935, 1940, 1945)

1:50000 지형도(1921, 1952, 1997)

거문리 지도(1912, 1926, 1940)

김기병, 1960, 영세 어업의 지역 구조에 관한 연구 - 울산 북부 어촌의 어업 구조와 그 변모에 대해서, 서울대 지리학과 석사 학위 논문.

김영근, 2003, 일제하 경성 지역의 사회·공간 구조의 변화와 도시 경험 - 중심 - 주변의 지역 분화를 중심으로, 서울학 연구 No 20, pp. 139 - 180, 서울 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 연구소.

김일기, 1985, 곰소만 일대 어촌 취락의 성쇠에 관한 연구 - 사포, 후포, 감포를 중심으로, 전라문화 논집 1, pp143-166, 전북대학교 전라문화 연구소.

김일기, 1988, 곰소만의 어업과 어촌 연구, 서울대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김일기, 1992, 동해안의 어업과 어촌발달사 연구, 문화 역사지리 4, pp181-204, 석천 이찬박사 고회기념특집호, 문화역사지리학회.

김재광·이승익, 1991, 개항을 전후한 목포의 경관 및 기능 변화, 지리학 논집 17(1), pp.27 - 49

오홍석, 법성포구의 어촌 연구, 지리학총 10, pp.289-303, 경희대 지리학과.

이상정·오인환, 1982, 어촌 촌락 구조에 관한 연구 - 사천만의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경상대 논문집 21호, 179 - 189, 경상대학교

장재훈, 1999, 한국의 촌락 입지에 관한 지형학적 연구, 응용지리 13, pp.141-157, 성신여자 대학교 지리학과.